

numbers 제 107호



주요 내용

2021.08.13

1. 이번 주 주제 : [한국 교회와 AI]

- 개신교인, AI 설교 '반대한다' 65%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 대한민국 고령층(55~79세) '앞으로 일하고 싶다' 68%
-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 46%!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사회 통계

개신교인, AI 설교 '반대한다' 65%

지난 2016년, 우리나라 바둑 기사 이세돌과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적인 바둑 대국은 우리로 하여금 생소했던 AI(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 기술의 경이로움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인간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와 기술은 점점 우리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자. 만약 전 세계의 설교를 다 한 곳에 모아 빅데이터화하고, 성경을 모두 습득한 AI가 어딘가 존재하고 그 AI가 딥러닝(Deep Learning)을 반복하며 기독교적 이슈를 분석해 매주 적절한 본문을 선정하고, 전 세계 유명한 설교가 또는 강연가의 스피치를 습득한 후, 최적의 보이스로 인터넷 공간에서 설교를 한다면? 또 유명한 성악가의 목소리를 배운 AI가 인간의 귀에 가장 아름답게 들릴 화음을 찾아내 매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다면? 현재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AI 등 과학의 발전이 종교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AI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반대하고 있다.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107호 [넘버즈]는 AI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제 현실과 국민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생각을 다루었다.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기독교 윤리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사명과 동시에 과학 발전의 산물을 잘 활용해야 할 과제가 한국 교회 앞에 있다. 이 보고서가 그 사명과 과제를 고민하는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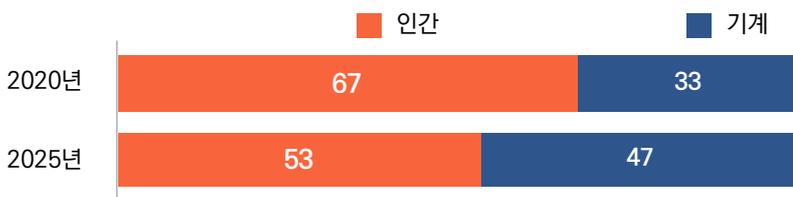
1



2025년, 인간과 기계의 작업 비율 거의 같아져!

- WEF(세계경제포럼)이 2020년 10월 20일 발표한 ‘2020년 미래 일자리 보고서’(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에 따르면,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 기계 대체가 늘어나면서 2025년에는 전 세계 기준 ‘인간’과 ‘기계’가 일하는 비율이 거의 같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0년 ‘인간’ 67% ‘기계’ 33%였지만 2025년에 이르면 ‘인간’ 53%, ‘기계’ 47%로 예측했다.

[그림] 인간이 일하는 비율 vs 기계가 일하는 비율 (%)



*자료 출처 : WEF(세계경제포럼),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2020.10.20

● 2025년까지 새롭게 생길 일자리, 1위 ‘데이터 분석가 및 데이터 과학자’

- 2025년까지 미래 일자리는 ‘인간’과 ‘기계’ 간의 일자리 교체로 인해 8,5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둘 사이의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는 9,700만 개로 사라질 일자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데이터 분석가/과학자’, ‘AI 및 머신 러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전략 전문가’ 등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이고, 사라질 일자리는 ‘데이터 입력원’, ‘비서’, ‘회계 업무자’, ‘감사’, ‘공장 노동자’ 등으로 예측했다.

[그림] 2025년까지 미래 일자리 예측



[표] 새로 생겨날 일자리와 사라질 일자리(상위 10개)

	새로 생겨날 일자리	줄어들 일자리
1	데이터 분석가 및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입력원
2	AI 및 머신 러닝 전문가	비서
3	빅데이터 전문가	회계 부기 및 급여 담당자
4	디지털 마케팅 및 전략 전문가	회계사/감사
5	공정 자동화 전문가	조립/공장 근로자
6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	비즈니스 서비스 관리자
7	디지털 전환 전문가	고객 정보 및 고객 서비스 직원
8	정보 보안 분석가	총무 담당 관리자
9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기계수리공
10	사물 인터넷 전문가	자재 기록/재고 관리자

*자료 출처 : WEF(세계경제포럼),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2020.10.20

2



우리나라 향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전체 근로자의 43%!

- LG경제연구원이 향후 인공 지능에 의해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일자리를 분석했는데,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자(2,660만 명) 중 43%(1,136만 명)가 향후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일 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AI로 대체될 고위험 직업군의 72%는 ‘사무/판매/기계 조작 종사자’로, 약 818만 명으로 추정됐다.

[그림] 향후 AI로 대체될 고위험군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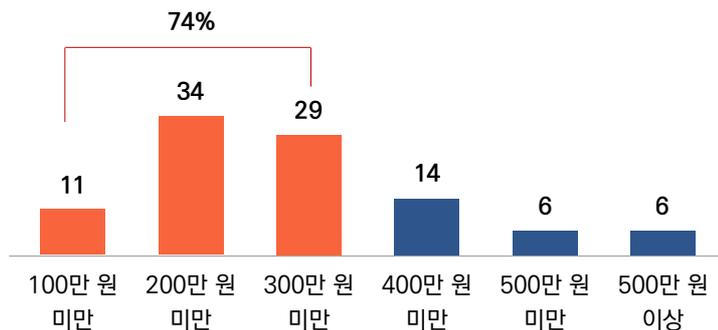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LG경제연구원,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2018.05.15.

** 고위험군 일자리 : AI등 자동화 기기로 대체 되는 것을 1로 볼 때 0.7% 이상 확률치를 나타낸 직군을 말함

● AI로 대체될 가능성 높은 고위험군 근로자, ‘소득 300만 원 미만’(74%)인 중하위층에서 가장 높아!

- 앞으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일자리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74%가 소득 ‘300만 원 미만’에 속한 근로자였다. AI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가 중하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향후 AI로 인해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 종사자 비율(월 소득별) (%)



*자료 출처 : LG경제연구원,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2018.05.15.

3



세계인, AI 기술 개발은 ‘사회에 긍정적이다’ 53%

- 퓨리서치(PewResearch)가 세계 주요 2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AI 기술 개발에 대해 세계인의 53%가 ‘사회에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해 부정 인식(사회에 부정적이다) 33%보다 20%p가 높았다. 반면에 기계 자동화(로봇)에 대해서는 ‘긍정 인식’ 48%, ‘부정 인식’ 42%로 긍부정 인식 차이가 줄었다.
- 이는 기계 자동화(로봇)에는 인간의 일자리와 연관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인은 AI 개발에 대한 긍정 인식 69%로 ‘싱가폴’(72%) 다음으로 높았고, 기계 자동화(로봇) 인식 역시 62%로 ‘일본’(68%), ‘스웨덴’(66%) 다음으로 높았다.

[표] AI 기술 개발과 기계 자동화(로봇)에 대한 인식(긍정 vs 부정) (%)

AI 기술 개발 인식			기계 자동화 인식		
국가	사회에 긍정적	사회에 부정적	국가	사회에 긍정적	사회에 부정적
평균값(Median)	53	33	평균값(Median)	48	42
싱가포르	72	16	일본	68	17
한국	69	22	스웨덴	66	21
인도	67	12	한국	62	28
대만	66	20	대만	62	22
일본	65	18	싱가포르	61	25
스페인	60	26	러시아	54	30
스웨덴	60	24	폴란드	51	21
이태리	57	28	네덜란드	51	44
브라질	53	39	체코	50	28
말레이시아	53	44	독일	48	43
러시아	52	30	캐나다	47	44
호주	49	39	인도	47	27
네덜란드	48	46	말레이시아	45	51
미국	47	44	호주	44	47
독일	47	43	영국	44	47
캐나다	46	43	이태리	42	41
영국	46	44	미국	41	50
체코	43	36	스페인	37	50
폴란드	38	28	프랑스	35	49
프랑스	37	47	브라질	29	64

*자료 출처: PewResearch, 'Science and Scientists Held in High Esteem Across Global Publics', 2020.09.29.(세계 20개국, 18세 이상 남녀, 각 나라 1,000명 이상, 대면 조사 및 전화 조사 병행, 2019.10-2020.03)

● 우리 국민 대부분(85%), AI 기술 발전은 내 삶과 우리 사회에 긍정적

- 우리나라 국민의 A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85%)이 AI 기술 발전이 내 삶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퓨리서치 결과와 응답 수치에서 차이가 있지만 AI 기술 발전에 대해서 긍정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
- 기대되는 점으로는 ‘생활의 편리성 및 삶의 질 증대’가 6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6% 정도로 기대감이 낮았다.

[그림] AI 기술 발전에 대한 인식(내 삶 vs 우리 사회)** (%)



[그림] AI 기술 발전에 따른 기대감 (%)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별 역할 수행',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3.19.-22)
 ** 4점 척도로 긍정적일 것(매우+대체로), 부정적일 것(매우+대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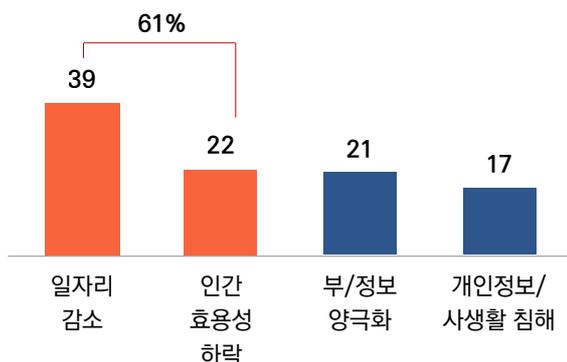
4



우리 국민은 AI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감소'를 가장 크게 우려해!

- AI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일자리 감소'와 '윤리성 문제'이다. 응답자에게 AI 발전으로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을 질문했는데, '일자리 감소' 39%, '인간 효용성 하락' 22% 등 인간 생계 범위에 침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61%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는 17%였다.

[그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우려점(상대 평가)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별 역할 수행',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3.19.-22)

[그림] 'AI 기술 발전이 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의견 (절대 평가,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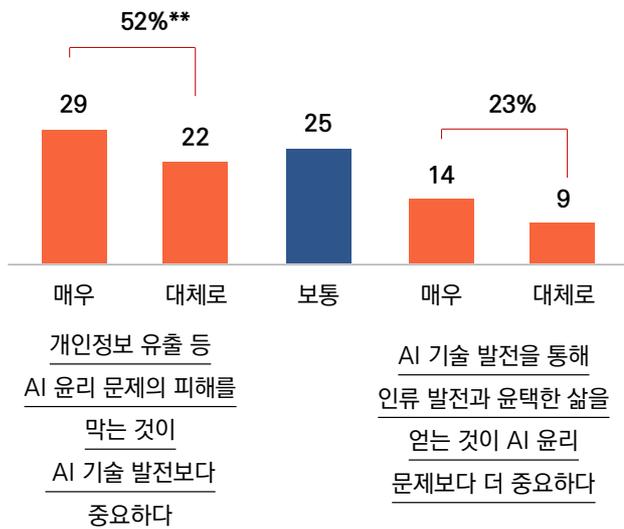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AI 시대와 우리의 미래', 2021.02.10.(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4.-16)

● 우리 국민은 AI 기술 발전보다 윤리 문제의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

- AI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AI 윤리 문제의 피해를 막는 것이 AI 기술 발전보다 더 중요하다' 52%, 'AI 기술 발전을 통해 인류의 발전 및 삶의 윤택함을 얻는 것이 AI 윤리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23%로 나타나, AI 관련해서는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윤리 문제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AI 윤리 문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인식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AI와 인간의 공존, 그리고 윤리성', 2021.04.28.(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3.19.-22)

** 그래프 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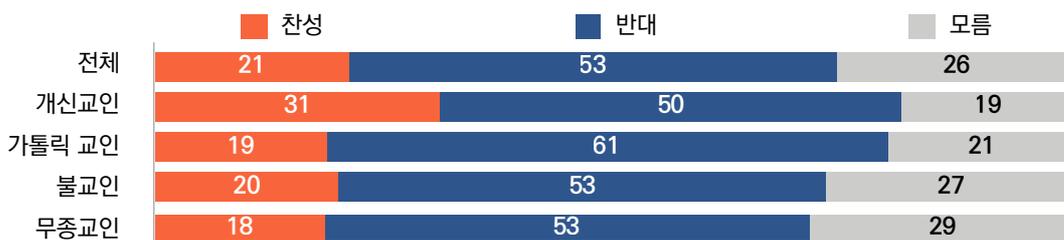
5



일반 국민 절반 이상(53%), AI 기술 등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하지 않는다!

- 과학 발전과 종교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할까?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5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과학 발전이 종교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 '과학의 발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종교별로 '개신교인'보다 '가톨릭' 교인에게서 가장 높았다.

[그림]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 의견에 대한 찬반(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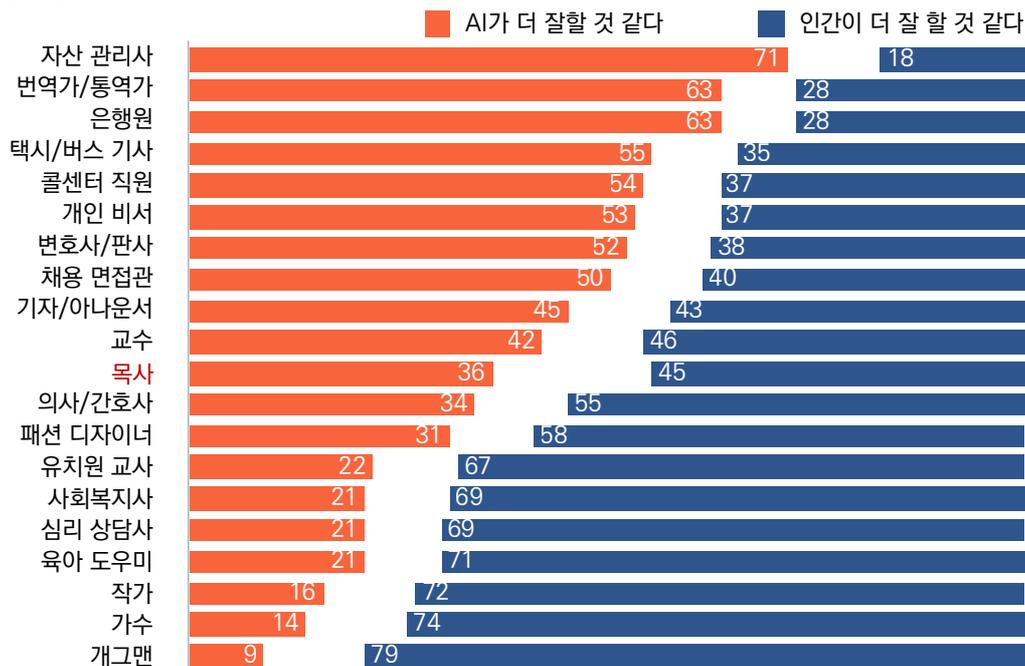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지앤컴리서치, '코로나19 이후 교회 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결과 보고서(일반 국민 대상)', 2020.09.1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13.-20)

● 목사 역할, 'AI가 잘할 것 같다' 36%, '인간이 잘할 것 같다' 45%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별로 인간과 AI의 역할 수행에 대해 물어보았다. AI가 가장 잘 할 것 같은 직업군은 '자산 관리사' 71%, '번역/통역가', '은행원' 63% 등으로 주로 전문 지식 기술 직업군이 상위권에 위치했고, 인간이 잘할 것 같은 직업군으로는 '개그맨' 79%, '가수/아이돌' 74%, '작가' 72% 등으로 나타나 주로 정서적 교감을 일으켜야 하는 직업군이 상위를 차지했다.
- '목사'에 대해서는 '인간이 잘할 것 같다' 45%, 'AI가 잘할 것 같다'가 36%로 나타났다.

[그림] 직업별 AI와 인간의 역할 비교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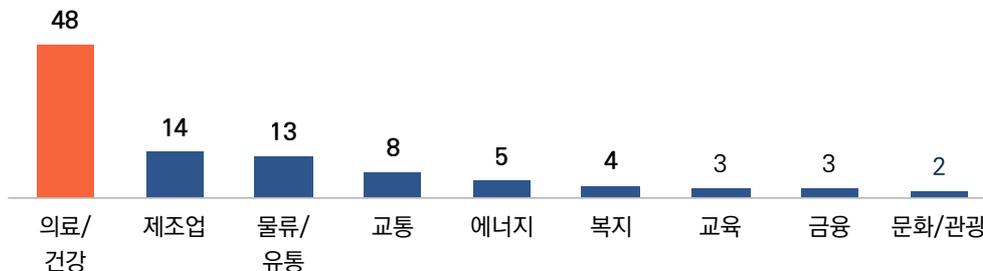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별 역할 수행', 2021.05.06.(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3.19.-22)
** 그래프에서 '잘 모르겠다' 응답은 표시하지 않았음

● 시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 '의료/건강' 48%

- 시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로는 '의료/건강' 분야가 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조업'(14%), '물류/유통'(13%), '교통'(8%), '에너지'(5%) 등의 순이었다.

[그림] 시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분야(일반 국민) (%)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시 시대와 우리의 미래', 2020.02.10(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0.01.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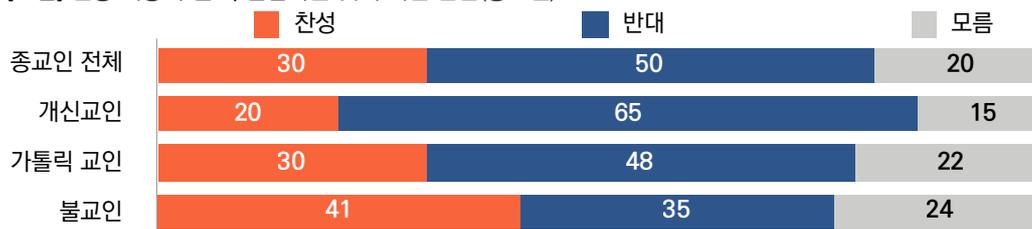
6



개신교인, AI 설교 '반대한다' 65%

- 종교인에게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찬성' 30%, '반대' 50%로 반대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았다.
-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20%, 반대 65%로 '반대' 응답이 훨씬 더 높았는데, 개신교인 5명 중 1명 가량은 AI 설교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 반면 불교인인 경우 인공지능이 설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41%, '반대' 35%로 찬성이 더 높았다.

[그림] 인공 지능이 설교/설법하는 것에 대한 찬반(종교인) (%)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지앤컴리서치, '코로나19 이후 교회 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결과 보고서(일반 국민 대상)', 2020.09.1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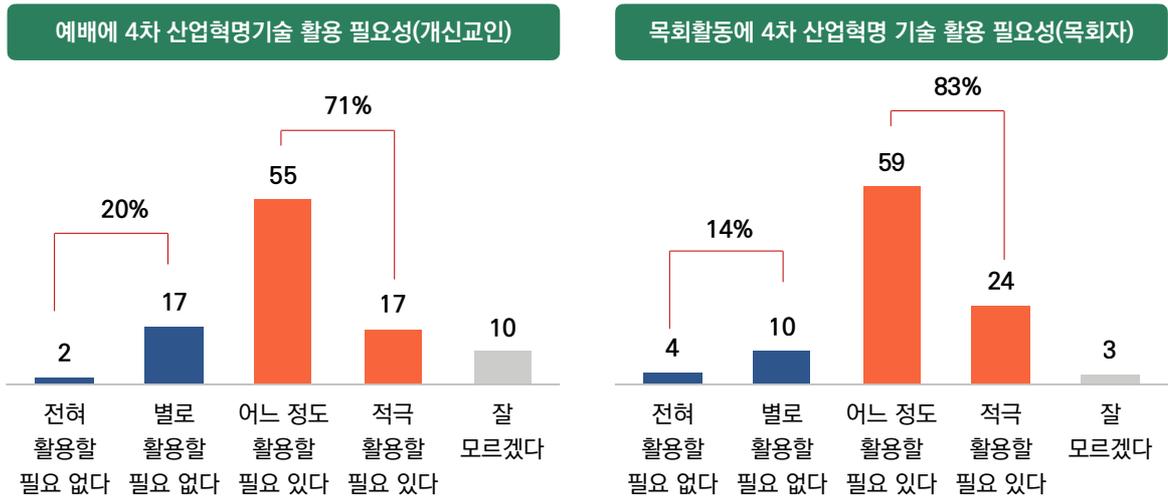
**찬성(매우+약간), 반대(매우+약간) 수치임

● 개신교인의 7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예매 활용 필요하다'

-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4차 산업혁명 기술(AI 기술 등)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개신교인의 경우 71%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예매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긍정 인식이 상당히 높았다.
- 목회자의 경우, 대부분(83%)이 목회 활동에 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림] AI에 대한 인식(목회자 vs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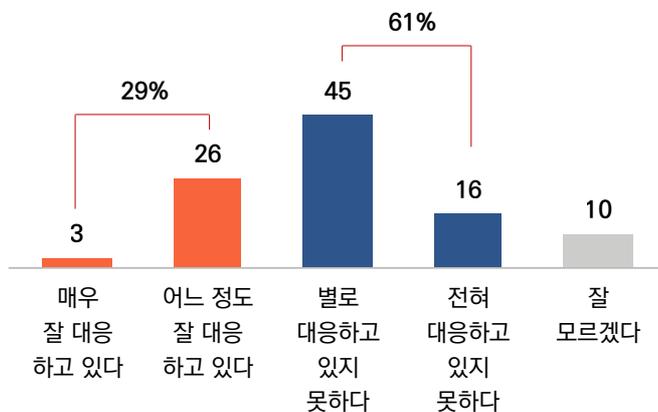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 보고서(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2021. 08. 13 (목회자 : 전국 통합측 소속 담임 목사 891명, 모바일 조사, 2021.6.18.-30)
(개신교인 :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6.17.-28)

** 그래프 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개신교인, 한국 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못하고 있다' 61%

- 개신교인들은 한국 교회가 4차 산업혁명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대응하지 못한다' 61%, '잘 대응한다' 29%로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앞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한국 교회의 활용 필요성 인식은 높은 반면, 대응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주목해 봐야 할 점으로 보인다.

[그림] 한국 교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평가(개신교인)



*자료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 보고서(개신교인 대상)', 2021.08.13.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6.17.-28)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이다. 인류 역사에는 이전 시대와 선을 긋는 획기적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3차례 있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생겨난 변화이다. 증기기관은 뜨거운 물이 내뿜는 증기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간이나 동물의 힘으로만 움직이던 산업 활동이 기계화되는 과정이었다.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방직기와 방직기가 발명되어 산업 생산이 급성장했고 증기 기관차와 증기선이 나오면서 교통수단이 발달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증기를 발생시킨 동력원이 석탄에서 부피도 작고 효율성도 좋은 석유와 전기로 바뀌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 시기이다. 교통수단도 기차에서 자동차로 대중화되면서 지리적 격차가 극복되어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시기였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 이후 컴퓨터, 인공위성, 인터넷의 발명으로 촉진되어 일어난 산업혁명이다. 지식정보 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불린다. 3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책 '3차 산업혁명'에서 사용한 것으로, 제레미 리프킨은 인터넷에 기반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유통의 범위와 속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사회적 권력이 수직적 권력에서 수평적 권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기에는 대기업이 혁신을 주도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소규모 벤처 기업이 새로운 혁신 주체로 부상했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 중 하나인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2015년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한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항공기,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등 6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술 혁신을 토대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놀라운 변화를 대중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사이에 이뤄진 바둑 대국이었다. 이 대국에서 인간이 인공 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사람들은 변화된 세상에 대한 경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미래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로 긍정적이긴 하나(5쪽),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수 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수많은 영화로 표현했다. 대표적인 것이 '터미네이터', '매트릭스'이다. 두 영화 모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적인 미래를 표현했다. 하지만 두 영화 모두 인공지능의 지배에 맞서 싸우는 인간을 그려냈는데 인간이 쫓기와 저항을 하게 된 동력은 자유에 대한 꿈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영속한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생명이 없다. 인간은 성장하며, 물질대사를 하고 생식기능이 있다는 물리적 의미 뿐 아니라 꿈과 사랑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더해질 때 생명체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다. 육체라는 물질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제' 등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한다. 그 남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활동에 더 집중함으로 인공지능에 지배 당하는 무기력한 인간이 아니라 생명 존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1% 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5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서 과학 발전이 극대화되는 시대에서도 종교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흔들림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사랑을 심어주신 것이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남겨 주신 것, 즉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미래 세계는 영화에서 보이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과학과 종교는 같은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의 두 렌즈와 같다. 동시에 종교는 과학의 발전에 걸맞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개발 사회에 부응하는 한국 교회의 사명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교회는 예배의 활용 방안과 적절한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 대한민국 고령층(55~79세) '앞으로 일하고 싶다' 68%
2.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 46%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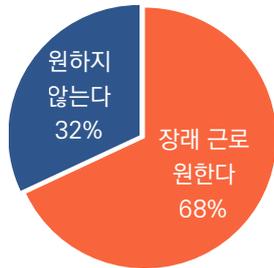
1.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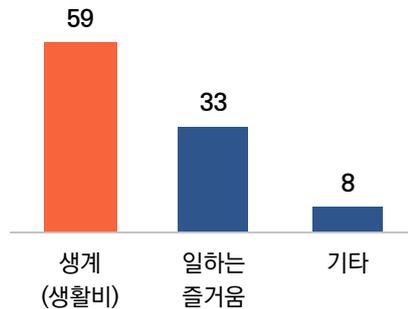
대한민국 고령층(55~79세), ‘앞으로 일하고 싶다’ 68%

-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의 향후 근로 의향률은 68%로 나타났다.
- 장래 근로 의향 동기를 살펴보면 생계(생활비)를 위한 동기가 가장 높다.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환산하면 전체 고령층 중에서 40%가량 된다.
(장래 근로 희망률 X 근로 동기가 생계인 비율)

[그림] 고령층(55~79세)의 장래 근로 의향 여부



[그림] 장래 근로 희망 동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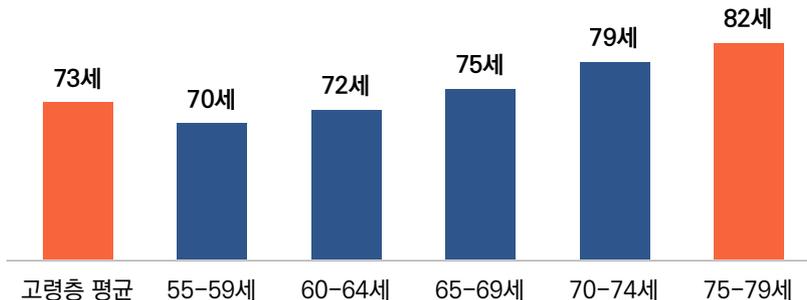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1.07.27.

● 한국의 노인, 생계 등의 이유로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

- 고령층(55~79세)을 대상으로 몇 살까지 일을 하기 원하는지 근로 희망 연령을 질문한 결과, '55-59세'는 70세, '60-64세'는 72세, '65-69세'는 75세, '70-74세'는 79세, '75-79세'는 82세로 나타났는데,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세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노인은 생계 등의 이유로 인해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고령층 근로 희망 연령(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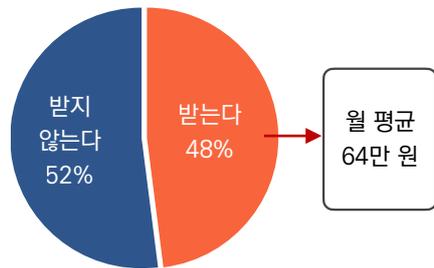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1.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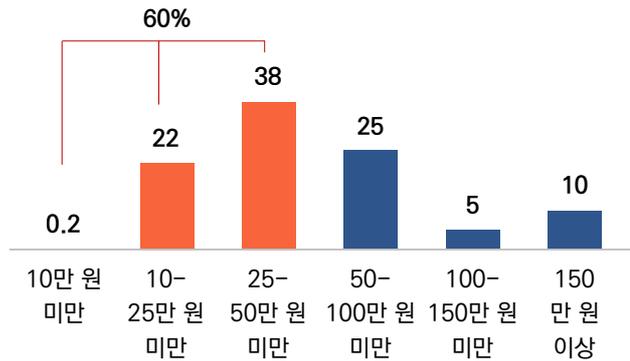
● 월 평균 연금 수령액 '64만원'

- 고령층(55-79세)의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비율은 48%이며, 60-79세층 중에서는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구간별로 보면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0%나 되고,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절반이 넘는 것(52%)을 감안하면 연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이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 이런 상황적 이유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여부



[그림] 연금 구간별 비율 (%)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1.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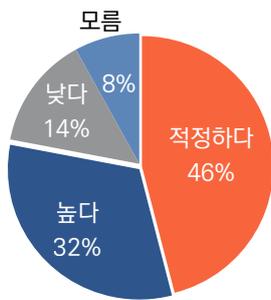
2.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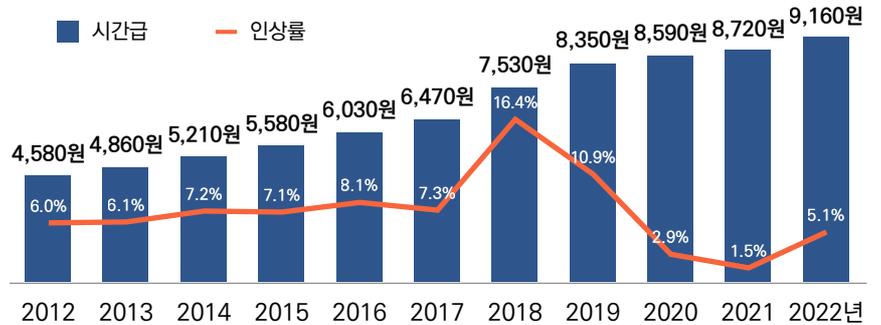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 '적정하다' 46%

-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적정하다' 46%, '높다' 32%, '낮다' 14%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높다'는 인식이 '낮다'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 2012년 이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최고 인상률을 보인 해는 2018년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했고, 최저 인상률은 2021년에 1.5%였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5년간 평균 인상율은 7.4%인데 이는 이전 박근혜 정부 7.4%와 동일했고 이명박 정부 5.2%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그림]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그림] 2012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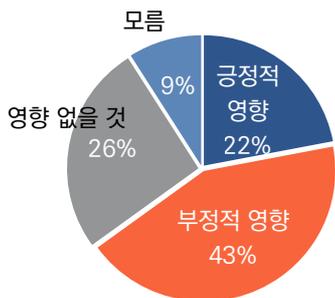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 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457호 2021년 7월 4주', 2021. 07.23.(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전화조사, 2021.07.20.-22)
 **최저임금 추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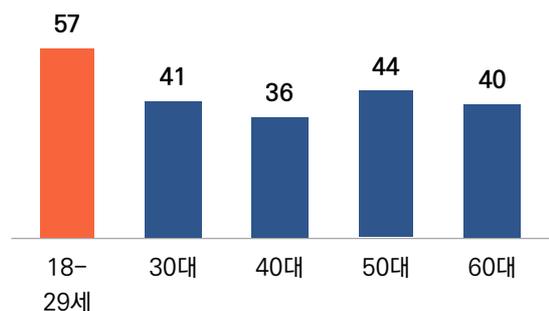
●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부정적 영향' 43%

-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 22%, '부정적 영향' 43%, '영향 없을 것' 26%로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 보다 2배 정도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대 층에서 '부정적 영향'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2022년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림] 연령별 부정적 영향 응답률 (%)



*자료 출처: 한국 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457호 2021년 7월 4주', 2021. 07.23.(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전화조사, 2021.07.20.-2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60호\(2021년 8월 2주\) - 코로나19 정부 대응, 도쿄 올림픽](#)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41호 \(2021년 8월 2주\) 대통령 국정 평가, 대선후보 적합도 등](#)

사회
일
반

[치매 인구 빠르게 증가... 2050년 3배로](#)

조선주간_2021.08.10.

[‘20대 여성, 또래 남성보다 사회참여에 적극적’](#)

연합뉴스_2021.07.27.

[코로나 장기화로 유독 우울... ‘2030’은 왜 그럴까?](#)

연합뉴스_2021.08.11.

[한국은 쌍둥이 대국, 출생아 22명 중 1명이 쌍둥이](#)

연합뉴스_2021.08.09.

[가계대출 억제 '백약이 무효'인가...커지는 빚투 위기론](#)

연합뉴스_2021.08.12.

[이륜차 사망 증가... 3명 중 1명 '배달 종사'](#)

동아일보_2021.08.12.

[50세 이상 임직원 비율...KT는 2명중 1명, 카카오는 100명중 1명](#)

연합뉴스_2021.08.11.

[고교 교장 82% “기초학력 미달·학력격차 심각”](#)

조선일보_2021.08.11.

[5주년 눈앞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 1위 ‘독주’](#)

미디어오늘_2021.08.09.

경제

[대출로 연명하던 중소기업... 이자 낼 돈도 이젠 바닥](#)

동아일보_2021.08.10.

[전국민이 뛰어 들었다...주식계좌 5000만개 돌파](#)

중앙일보_2021.08.08.

[밥상물가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 OECD 26위→3위 '악화'](#)

서울신문_2021.08.08.

[상장기업 임원 100명 중 여성은 5명...OECD 평균은 4명 중 1명](#)

연합뉴스_2021.08.05.

기
후

[지구 1.5도 상승, 12년 앞당겨져…“폭염 8.6배 증가”](#)

동아일보_2021.08.09.

[‘온난화 인간 탓’ 99~100%…30년내 북극 다 녹을 수도](#)

한겨레_2021.08.09.

환
경

[“한국의 탄소배출량, 고작 3년치 남았다” IPCC 보고서의 경고](#)

한국일보_2021.08.10.

[일회용품 6300만개 쓰는 제주, 렌터카 빌릴 때 텀블러 대여](#)

중앙일보_2021.08.09.

종
교

[“자녀 있어야 한다”에 기독교인 82% VS 무종교인 65% “그렇다”고 응답](#)

뉴스파워_2021.08.12.

[미국 목회자 대부분은 성추행하는 목사들은 영구히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신뉴스_2021.07.29.

국
제

[韓 백신접종 완료 OECD 꼴찌…콜롬비아에도 뒤졌다](#)

중앙일보_2021.08.09.

[미국인 절반 “中, 인권 탄압…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최 말아야”](#)

동아일보_2021.08.10.

[일본 남성 중 50, 60대 고독사가 많은 이유 뭘까](#)

중앙일보_2021.08.08.

[‘한국인 보다 가난한 일본인?’ 그들 월급이 20년 넘게 그대로인 이유](#)

매일경제_2021.08.07.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횡발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C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증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백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형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달훈,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지용선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